

강정호, 복귀 불발... KBO 계약 승인 않기로

금산중 씨름부, 전국 대회서
청장급 1위 · 용사급 3위 입상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불의를 일으킨 강정호(사진)의 KBO리그 복귀가 무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허규연은 지난달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며,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에 의거한 결정이다.

메이저리그(MLB) 진출 전 뛰던 키움을 통해 복귀를 타진했던 강정호의 바람은 KBO의 이번 결정으로 얕은 일이 됐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히어로즈와 선수계약을 임의해지, 임의해지선수로 공시됐다가 지난 3월 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

임의해지 복귀 허용... 키움과 계약은 불허

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귀 여부 결정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로 봤다. 이에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을 근거로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임의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지만 키움과의 계약이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강정호는 KBO리그 소속으로 될 수 없다.

KBO는 강정호와 키움의 선수계약 승인이 KBO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봤다.

그 근거로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작·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MLB에서 뛰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심이웃제를 적용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키움측은 KBO의 결정에 대해 논의를 갖기로 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 어떠한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키움 관계자는 "오늘 KBO의 최종 결정을 접했다.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강정호는 이내 KBO리그 최고 유격수 자리를 꿰뚫었다. 2014년까지 통산 902경기 타율 0.298, 139홈런 545타점을 수확했다.

2014시즌 40홈런 117타점을 수확하며 역대 유격수 한 시즌 최다 홈런과 최다 타점 신기록을 쓰기도 했다.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로 뛰면서도 타격에서도 큰 재능을 보인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IB의 문을 두드렸고,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4+1년, 최대 165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한국 내야수를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딛고 MIB에서도 자리를 잡은 강정호는 음주운전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날렸다.

한편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학교장 박기남) 씨름부가 지난달 6일에 열린 제36회 전국 시·도 대학 장사 씨름 대회와 25일에 열린 제76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우민우(3학년), 이태민(3학년) 선수가 각각 용사급 3위와 청장급 1위에 입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씨름부는 도내 최대 규모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속 선수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고등학교로 진학해 씨름선수의 꿈을 연계해 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16명의 씨름선수들이 송민수 감독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금산중학교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예체능 분야 진복의 별 육성사업'을 통해 훈련비와 훈련기구 구입비를 지원 받아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훈련을 받고 있으며, 나날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진복의 별 육성사업'은 전북도의 예체능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전북도와 김제시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사비, 장비 구입, 훈련 및 경기 출전 경비 등을 지원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격파·폼새·경연까지 우리 실력 맘껏

전주비전대 태권도체육학과
성지대 총장배 대회 등서 '두각'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체육학과는 최근 열린 제49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와 제13회 상지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폼새 및 격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2~29일 개최된 제49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공인폼새 대학 남자개인전에 박해성 학생(1년)이 1위를, 장수빈 학생(2년)이 2등을, 윤상원 학생(2년)이 3위를 차지했다. 또 여자 개인전에서는 이지원 학생(2년)이 2위를 했다. /정은성 기자

또한 4월27일~5월1일까지 열린 제3회 상지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 폼새 및 격파 대회에서도 '종합격파 여대부'와 '수직축회전격파 여대부'에서 신보라(2년) 학생이 '수평축회전격파 남대부'에서 이하민(1년) 학생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고봉수 학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쉬지 않고 끊임 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학생들이 일궈낸 성과를 아낌없이 칭찬했다.

한편 제49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는 대학생 선수와 태권도 동호인 등 98개 팀 2900여 명이 참가해 겨루기 폼새, 태권 경연 등으로 기량을 겨뤘다.



정읍시 단풍미인씨름단이 지난달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리는 2022 민속씨름 과산장사 씨름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사진은 단풍미인씨름단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과산장사 대회 '필승' 다짐

정읍 단풍미인씨름단, 내달 5일까지 개최 대회 11명 출전

정읍시 단풍미인씨름단이 지난달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리는 2022 민속씨름 과산장사 씨름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지난달 거제시에서 열린 '거제장사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의 성적을 거둔 단풍미인씨름단은 기세를 몰아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향한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이번 경기에는 김시영 감독과 조명신 코치를 중심으로 태백급(80kg 이하) 2명(박상준, 김성하), 금강급(90kg 이하) 4명(강성인, 유혁, 배경진, 정석진), 한라급(105kg 이하) 3명(김기환, 이승욱, 한창수), 백두급(140kg 이하) 2명(김병찬, 박준규) 총 11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최고의 컨디션을 유

지하고 있는 단풍미인씨름단은 이번 경기에서 최상의 기량을 펼쳐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포부다.

김시영 감독은 "정읍시를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멋진 경기를 펼쳐 정읍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정읍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큰 기쁨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5월 5일까지 6일간 충북 과산군 과산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되며, MBC sports 및 유튜브 채널 '살바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